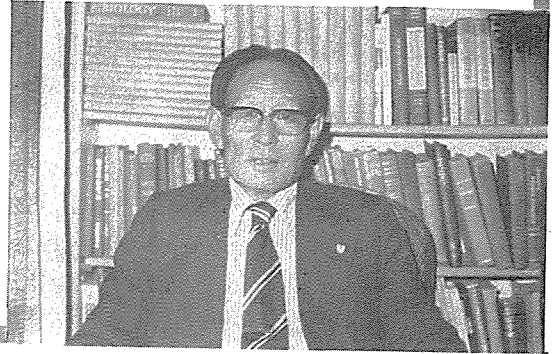


# 專攻살려 農政에 于與

金憲奎 博士篇(中)



◇ 시험에 지친 留學 草創期 ◇

동양학생은 어학도 모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고생들이었다. 특히 시험이 매주 있고 숙제도 과목마다 있어서 공부할 때와는 크게 달랐다.

일본에서는 한학기 한두번의 시험이어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곳에 가니 매과목 거의 매주 시험이 있었다. 대학원생인 나 역시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밟았다. 처음에는 그런줄도 몰랐는데 교수가 들어오더니 시험을 치고 답안지 겹어 옆에 놓고 그날 강의를 계속 한뒤 나간다. 하도 답답해 동양에서는 대학원생은 이렇게 많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기말시험 뿐이어서 한 두번이면 족한데 이걸 좀 너무하다. 지난번 47점 밖에 못 받았는데 나로서는 최대한 받은것 같다고 했더니 그 교수는 자기가 동양에 가면 그만큼도 못할것 같으면서 첫 시험 47점이면 괜찮은 점수이니 아무 염려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지극히도 무성의(?)한 답변이다.

그뒤 숙제를 열심히 내고 공부도 더욱 열심히했더니 성적이 조금씩 올라갔다. 제출한 숙제점수는 항상 90점 이상이고 이런 기록은 일일이 교수수첩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교수

는 나중에 평균 70점인 내 성적에 보너스로 13점을 더 주었다. 1, 2점에 울고 웃는 요사이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생각하면 실로 파격적인 禮遇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 교수의 성적 평가에는 실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설명인 즉-다른 미국 학생들의 성적은 60점, 90점 하는식으로 들쭉날쭉이 심한데 이는 공부를 했다, 안했다 한 증거이고 내성적은 47점부터 시작해 한번도 내려간 일이 없이 향상만 했으니 이는 곧 공부를 꾸준히 했다는 표시라면서 보너스 13점이 오히려 적다는 이야기다. 이런일이 있은 후 여러 교수들의 학생평가 방법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렇게 열심히고 정확할수가 없었다.

학생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문제 출제에도 무척 신경을 쓴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의 강의를 평가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들이 시험을 치는 이유는 자기 강의를 학생들이 잘 받아 들였는지, 이해를 잘하는 가를 평가해 반드시 자기 강의에 반영한다.

학교新聞論調, 분위기 학생들의 토론, 발언 등으로 자기 자신의 강의를 반성하고 暗行評価를 계속한다. 학생들을 꿀탕먹이거나 불합리한

시험문제를 내면 파면 되기도 하고 강사들은 다시 계약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출제에 강의준비 이상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이런 문제를 내면 내 위치를 내가 알수있겠다는 정도로 되어야 한다.

사실 이동안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옆에서 도와 주신 분들의 공이 무척 컸다.

◇浪漫도 잇든 学窓時節◇

日本에서는 공부가 주였지만 축구와 스키에도 열심이어서 축구선수로도 뛰었다. 특히 스키는 北海道 명물이어서 당시 한국에서는 스키 타는 것을 잘 몰랐지만 이 스키에 심취할 기회가 많았다.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루짜 야마”에 갔을때의 일. 기차를 타고가서 3~4 시간 걸려 산에 올라가면 산장에서 숯불도 피워놓고 커피도 끓여주어 몸을 녹인후 30분쯤 미끄러 내려오는 아주 멋진 계곡이 있다. 그때 막 산장문을 열고 나서서 스키를 타고 내려 가려고 하는데 온통 눈(雪)의 장막이 쳐지는 것이 아닌가. 단 한치알도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일행중 가장 스키를 잘타는 일본학생이 제일 앞장서고 그다음에 나, 내뒤로 좀 나은 일본학생이 돌보아 가가스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모두가 큰 모험을 한 느낌이었다. 산 밑에 오니 電信柱 높이 만큼씩 눈이 내려 자동차속에서는 사람만 빠져 나온채 차는 그대로 길거리에 내버려 둔 것이 여러곳에서 보였다.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은 싫다는 생각뿐이지만 그때는 어서 겨울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앞섰다. 아무데서나 마음만 내키면 할 수 있는 것이 北海道스키였던가 보다.

공부에 시달림을 받았던 美国에서의 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남녀 교제는 자유로운 편이지만 규모가 있었다. 여자가 18세가 되면 생일날 스위트 16이라는 파티를 부모가 열어 주는데 이

파티에 초청 받으면 더없는 영광으로 여긴다. 나에게도 이 파티에 초청을 받는 행운이 있었다.

당시 의과대학 교수 자녀로 영문과 3학년에 다니던 제인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이 여학생 생일날 관례에 따라 남자 8명, 여자 7명에 제인, 부모등 모두 18명이 하나씩 끼어 앉아 파티가 진행되었다. 이때 부친이 지금부터 퀴즈를 하겠다고 한 후 종지와 연필을 나누어 주고 佛語로 손수건을 물어보고 大学實驗을 할때 튜브에 물약을 넣고 냄새를 맡아 그속에 들은 물건을 알아 맞추게도 했다. 이 게임에서 나는 30점 정도 맞추었는데 미국 학생들은 80-90점씩을 받아 동양인으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 다음 부친이 BACHELER'S BUTTON이 무엇이나고 물었을때 이를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나 내가 꽃이름(우리나라에서는 야차국이라 함)이라고 맞추어 실점을 만회했다.

이런 저런 게임을 진행한 뒤에 저녁을 먹고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인에게 모두들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이게 스위트 16파티의 관례라 함) 마지막에 내차례 되었다. 나는 당황해서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나하고 무얼하면 좋겠느냐고 되물었다. 제인은 데이트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 좀한다고 했더니 금요일 오후 시간이 어떻냐고 물어왔다. 대학원에 나가던 나는 일주일에 3번만 학교에 가면 족했으므로 시간이 비교적 많았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2~4시까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길로 라켓을 하나 샀다.

그때 우리 대학에는 테니스코트가 28개가 있었는데 4개는 선수용이고 일반에 할애되어 테니스 하기에는 아주 좋았다. 그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누구의 제의가 없어도 테니스를 즐겼고 그녀의 집에까지 테러다 준후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추억은 아름답기만 하다.

◇美·日전쟁으로 귀국, 감옥에 가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때 美·日전쟁이 터졌

다. 이렇게 되자 공부도 제대로 되지않고 미국인들이 물어오기를 미국군대에 입대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서약서도 준비했으니 싸인하고 입대하라고까지 했다. 나도 별생각 없이 싸인을 했지만 끝내 입대는 하지 못했다.

그당시 미국에 유학간 학생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2년마다 FBI에서 조사를 하는데 하숙집까지 찾아와 매일 학교에 나가는지, 등록을 했는지 알아보고 또 직접 본인들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공부할 생각인가를 물어보고 조사결과 공부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판인이 서면 본국으로 보내 버렸다.

그뒤 나는 공부도 제대로 되지않기에 홀로 귀국했는데 귀국후에는 고생이 막심했다.

그래도 귀국하면 젊고 능력도 있으니 뭐라도 할줄 알았는데 일본인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다. 지금 일본이 미국하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너는 미국에 갔다 왔으니 미국편 들거 아니냐며 항상 감시를 했다.

한번은 미국인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사람까지 모두 잡아 갔는데 이때 나는 토요일 오후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집에 있다 잡혀가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뒤로는 禁足令이 내려기차타고 어디 가지도 못한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명령이었다. 그뿐인가 매주 토요일 12시만 되면 고등계 형사가 어김없이 찾아와 3가지 질문을 하고 간다. 그것도 매주 꼭같은데 그 질문이란 것이-

1. 지난 일주일간 누구를 만났는지 만난사람 이름을 써라
2.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 책 이름을 써라
3.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용을 적으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상상취체법과 상상취체령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는데 몇번 당하고 나니 요령이 생겼다. 많지 않은 영어책들은 모두 지워 버리고 신구약 성경 큰것하나하고 친구한테 빌려온 手相책 두권만 두었다. 무슨책 읽었냐면 성경과 손금보는 책 읽었다. 누구 만났냐면 아무개목사

만났다. 무슨 생각 했느냐면 어물어물 구령이 담넘어 가듯해 한참을 보냈다. 지금도 손금을 좀 볼줄 아는것은 아마 이때 읽어둔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해방이 가까와 오자 일본 고등계 형사가 찾아와 옛날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며 “네 하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다해보라, 독립해야 된다고 해도 좋다”고 하는데 이사람 또 무슨 계략을 쓰는건 아닌가 치레 겁이나 아무말도 하지 못할 일도 있다. 그런데 당시 치안계통에 있던 한국사람들도 젊은이들을 중국집에 모아 놓고 요리도 사주며 뭐든지 당신네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라고 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 이런 태도변화는 이미 日本의 外勢를 느낀 약빠른 사람들의 행동이었지만 이런일이 생긴지 얼마안가 정말로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다.

#### ◇해방후 곧 南쪽으로◇

해방 얼마전 우리 교장의 유명한 절인 長壽山 妙音寺에 高義東이라는 글씨와 그림잘하는 사람이 찾아와 黃海道지식인, 유지들을 모아놓고 書道강습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미 일본이 머지 않아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려 주었다. 나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계속 존경해 왔는데 아내도 이때의 일이 크게 감명을 주었던것 같다.

그사람의 이야기는 야마모토 해군대장이 죽고 일본 해군이 형편없이 쫓기고 있으며 멀지 않아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리라는 내용이였다. 그뒤 지방인들도 이런 사실을 대부분 알게 되었고 고등계 형사들의 태도변화 역시 최후 발악으로만 보여져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이때 나는 農場에서 技師로 일하고 있었다. 강원산업 鄭社長부친이 大地主로 3大地主가 합쳐 3개군에 걸쳐 1만석 규모의 농장을 차려 놓았는데 이곳에서 농장의 생산기술 지도를 하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경찰서 앞마당으로 젊은 이들을 모아 놓고 이제 일본은 망했으니 경찰서 열쇠

를 너희들에게 주겠으니 치안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열쇠를 인수한 후 성명서도 내고 프린트도 하면서 치안유지에 나섰다. 경찰서장, 읍장도 뽑았는데 얼마 안있어 소련군이 진주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공산당 관계로 8명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들은 재빨리 공산당을 결성하고 바로 이들 젊은이들과 대립했다. 나한테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두지 않을테니까 빨리 서울로 가라는 권유가 많았고 소련군이 말하고 들어오는데 사태가 심심치 않아 곧 자전거로 해주까지 나와 9월 18일, 친구 자동차 편으로 서울을 나왔다. 내가 가족과 합류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美軍政廳에서 근무◇

다음날 반도호텔에 들렀더니 하지中將 비서인 미군大尉가 편지 봉투를 한다발 건네준다. 한 300통쯤은 될 것 같았다.

내노라하는 국내 인사들이 이나라를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편지를 읽고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달라는 것으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란다. 이 내용은 곧 하지중장에게 보고되고 군정에 반영될터이니 내가 하는 일이 실로 막중함을 알았다. 주위를 보아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일에 종사해 온 것 같았다.

그뒤 이자리에 근무하다가 트럭회사일도 해보았으나 결국 농학을 전공한 몸이어서인지 경제원조팀이 오자 여기에 간여하기 시작했다.

농림부장관은 덮어 놓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던 때라 나는 뒷 사무실에 앉아 책임자급인 美軍大額을 맞나러 오는 한국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점검, 실무집행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나의 직책을 알고 있는 한국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청구서를 받으면 그 미군은 나한테 가져와 판단을 요구하는게 보통이었다. 한번은 부산에 갔을 때였다. 유황 1,500톤을 달라는 청구가 들어왔다. 영문을 모르는 미군은 즉시 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24시간의 여유를 달라니까 1

주일일 걸려도 좋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알아보니까 사과나무가 전국에 116万本이 있는데 石灰, 硫黃合劑약품을 뿌려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황을 청구한 것이다. 사과나 배 나무는 한씨즌 3번 약을 뿌려야 하는데 한번에 한 나무에 얼마 하는식으로 계산하니까 900톤이면 될것 같아 그대로 답했더니 7명의 결재권자들이 한시간도 못되어 도장을 찍었다. 물론 물건은 바로 차에 실리어져 현지로 내려 갔음은 당연하다.

그밖에도 텅스텐 광산에 시멘트 몇천포대, 유리 도자기 공장, 군산의 어름공장등에 파이프등을 보내주는데 한몫을 했다.

◇ 6·25후 農政에 関与 ◇

1952년에서 53년까지 FAO에서는 윌리엄스단장등 11명의 농학자를 보내 한국농업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이었다. 나는 이 위원단의 자문위원으로 일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감자 재배문제.

감자는 南美 안데스산맥이 원산지로 해발 800m 정도가 적지이다. 우리나라에는 간도를 통해 90년전에 도입되어 전국에 퍼졌는데 위축병이 걸려 알이 아주 작았다. 이병은 바이러스가 병원균으로 진딧물이 매개체인데 진딧물이 빨아 먹으면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 갔다가 전염되곤 한다. 이병에 걸리면 알이 쭈글쭈글해지고 종자가 줄어드는데 해발 800m면 기온이 서늘하여 진딧물이 서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자감자 생산에 좋다. FAO 위원단은 이런 지역으로 대관령을 선택하고 실험재배를 했더니 크게 성공했다. 지금 대관령에 감자밭이 많은 것도 바로 이덕택이며 자유당시절 농림부장관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척 안타까웠으나 5·16혁명후 다시 재배, 성공을 거두어 이러한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흐뭇했다. 지금 보통사람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우나 나는 꼭 중간에 내려 이들의 作況을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씨감자 생산은 수익성도 높아 감자 생산에 별로관심이 없는 농가에도 권해 봄직하다.